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호주의 디지털헬스 산업

2020. 08. 03. Vol. 357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0.08.03
Volume 357

CONTENTS

01 포커스

• 호주의 디지털헬스 산업 ····· 1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Evidation, 4,500만 달러를 조성하여 가상헬스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 4
• 미국 Epic과 Cerner, 전자건강기록(EHR) 시장을 양분 ····· 4
• 영국 NHS, COVID-19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Palantir와 계약 연장 ····· 5
• 일본, COVID-19 확산에도 의사를 지원할 ICT활용 미흡 ····· 5
• 인도 헬스케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헬스(mHealth) ····· 6
• 마이크로소프트社, 원격의료 수행을 수월하게 해주는 플랫폼 프리뷰 발표 ····· 6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NSTC, 고령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혁신 추진사항 제시 ····· 7
• 미국 암젠, 노바티스 산도스 상대 소송에서 2개 특허 유효 판결 ····· 7
• 영국 옥스퍼드대학, COVID-19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연구결과 ····· 8
• 덴마크 Ambu, 일회용 십이지장경에 대해 FDA 승인 획득 ····· 8
• EC, 화장품 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에 대한 평가 발표 예정 ····· 9
• 일본, 첨단 바이오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바이오전략 2020' 마련 ····· 9
• COVID-19 대응, 기본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 ····· 10
• 글로벌 COVID-19 백신대응체계, COVAX Facility에 150개국 이상이 참여 ····· 10

호주의 디지털헬스 산업

호주 디지털헬스 정책 수행기관인 앤드헬스(ANDHealth)는 '17년부터 317개의 호주의 디지털헬스 회사를 분석하여 성장잠재력이 높고 호주 경제와 헬스케어 시스템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1] 개요

COVID-19 세계적대유행으로 인해 '20년 이후의 시장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원격의료(telehealth) 및 전자의료기록(EMR) 기술이 전체 시장의 약 25%을 차지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헬스 시장은 '18년 864억 달러에서 연평균 28.7% 증가하여 '25년에는 5,50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년 디지털헬스시장은 2,06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1,100억 달러는 무선헬스 기술, 460억 달러는 모바일헬스 기술, 260억 달러는 원격의료 기술, 240억 달러는 EMR 기술에 의해 창출될 전망
-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이후 △원격의료·원격진료 △원격환자모니터링 △당뇨병 시장 △정신건강 및 중독 △증상 검사 및 중증도 환자분류(triage tools) △디지털 치료요법 △임상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비롯한 수많은 요인들이 디지털헬스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2] 호주의 디지털헬스 인프라 주요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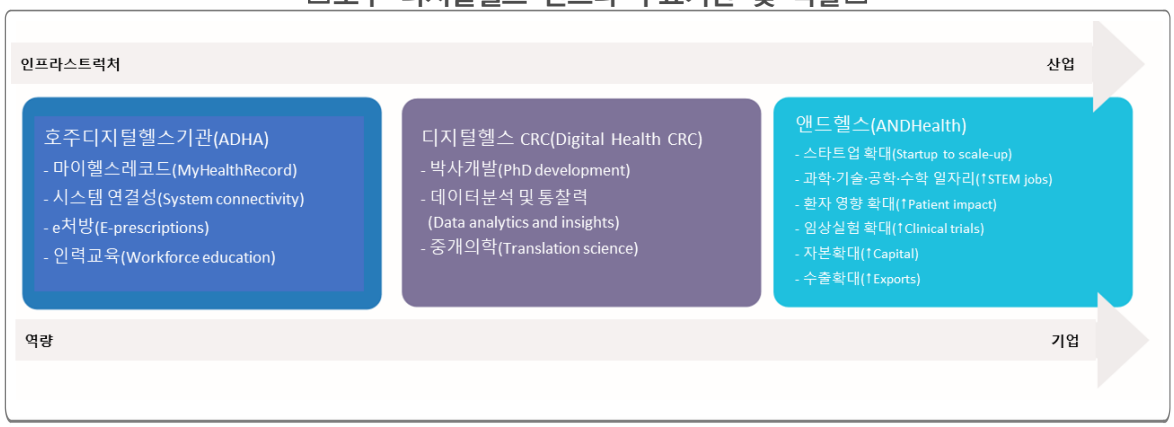
호주는 수십 년간 지속된 △혁신지원정책 △디지털헬스 역량 향상과 인프라 투자 △COVID-19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디지털헬스 산업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

- '16년 설립된 호주디지털헬스기관(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ADHA)은 마이헬스레코드(MyHealthReco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자처방(E-prescriptions) 등 완전 연계된 의료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호주는 의료소프트웨어산업협회(Medical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호주디지털헬스연구소(舊 HISA)를 비롯한 산업 단체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보건 정보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시현
- '18년에는 디지털헬스협력연구센터(Digital Health CRC)가 설립되어 60개 이상의 대학 및

업계 파트너와 함께 만성 질환, 임상 실습, 의사결정 지원, 원격 케어, 재활 및 노인케어 등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

- 호주 주정부 차원의 디지털헬스 이니셔티브인 △e-Health NSW △Victoria州의 Connecting Care EMR 프로그램 △E-Health QLD △Centre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Health △Commission on Excellence and Innovation in Health 등이 추진
- 앤드헬스(ANDHealth)는 '17년 이러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중요한 투자를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혁신적인 디지털헬스 회사가 수십 년간의 정부 투자로 만들어진 인프라 기반하에서 성공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상용화하도록 지원

□호주 디지털헬스 인프라 주요기관 및 역할□



[3] 호주 디지털헬스 산업 동향

■ 호주의 산업은 미래 성장 기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그 증거로는 조사대상 회사의 △37%는 원격환자모니터링 등과 같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17%는 정신건강에 중점 △13%는 임상의사결정 지원 △10%는 진단과 스크리닝에 집중

- 대부분의 호주 회사들은 임상 및 환자 수준에서 프로세스와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며, 33%는 질병의 자기관리, 환자 행동변화 및 의약품 관리에 기술을 배치하고 있으며, 26%는 임상 및 비임상 워크플로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색
- COVID-19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병원 밖에서 치료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호주에서는 37%의 회사가 기술을 가정에 배치하고 추가로 8%는 직장에 배치하려고 추진
- 기업의 36%는 지역사회 돌봄, 노인 돌봄,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개업의(GP) 또는 헬스연합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으며 병원 내 또는 수술 환경에 초점을 둔 것은 19%에 불과

[4] 호주 디지털헬스 산업의 기술 동향

분석 대상기업이 기술초점을 어느 곳에 두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호주 디지털헬스 분야의 향후 수요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

- 기업의 25%는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을 우선 기술초점분야로 선택하였으며, 22%는 모바일 헬스, 14%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11%는 서비스형 플랫폼(PaaS), 10%는 커넥티드기기·센서·웨어러블·IoT, 9%는 원격진료·원격의료를 선택

  * 의료분야에서의 AI투자는 '18년 27억 달러에서 '19년 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mHealth 부문은 '15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트렌드에 보조를 맞추는 모바일헬스(m-Health)에 집중하는 기업이 전체의 22%를 넘었으며, 소비자헬스앱은 '15년 이후 두 배 증가했으며, 현재 주요 앱 스토어에서 30만 개 이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매일 약 200개의 새로운 앱이 추가되는 추세

-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급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조사대상기업의 9%만이 원격의료 및 원격진료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원격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 프레임워크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보험혜택이 예상되므로 이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

[5] 앤드헬스(ANDHealth)의 COVID-19 관련 설문조사 결과

ANDHealth가 53개의 디지털헬스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COVID-19 관련 설문조사에서 △고객에 대한 접근성(71%) △자본조달능력(62%) △정부자금지원역량(44%) 등이 상업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상위 3가지 문제로 답변

- COVID-19으로 인해 디지털헬스 회사의 긍정적인 측면은 30%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였고, 24%는 직원을 신규 채용했으며, 21%는 확장 계획을 가속화

-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24%는 임상 시험을 중단시켰고 추가로 15%는 상업추진을 중단하였고, 24%는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

- COVID-19가 디지털헬스 분야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의료계의 디지털헬스의 수용 증가(74%), 환자의 수용 증가(50%), 디지털헬스 기술에 대한 보다 많은 보험급여 적용(24%) 및 디지털헬스 기술 시장의 확대(24%)라고 답변

- 포스트 COVID-19 환경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는 원격의료(85%), 원격모니터링(68%), 데이터분석(35%) 및 디지털정신건강(29%)이라고 전망

[ANDHealth, Digital Health- The Sleeping Giant of Australia's Health Technology Industry, 2020.07.09.]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Evidation, 4,500만 달러를 조성하여 가상헬스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 **미국 데이터분석 스타트업 기업은 에비데이션헬스(Evidation Health)社는 Series D를 통해 4,500만 달러를 자금조달에 성공하였으며, 이 자금을 가상헬스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 Evidation이 개발한 'Achievement' 앱은 사용자가 4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걸음거리, 수면, 식사 및 기타 건강 지표 등을 추적할 수 있으며, 향후 가상헬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Achievement 플랫폼을 확장할 예정

  * 미국 캘리포니아州 서부 샌머테이오(San Mateo)에 본사를 두고 있는 Evidation社는 디지털 의료분야에서 필요한 자료를 분석 정량화하는 기업으로 스탠포드 헬스케어와 GE벤처스가 설립한 합작법인

- 글로벌 상위 바이오제약 회사 중 8개 회사가 Evidation의 센서 데이터, 환자보고 결과(ePRO) 및 재택 진단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으로부터 생성된 건강데이터(PGHD)에 의존
- Evidation은 PGHD를 사용하여 COVID-19를 탐지, 특성화 및 예측하기 위해 아이칸의과대학(Icahn School of Medicine),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을 포함하여 산업, 학계, 정부 및 시민 사회의 파트너들과 협력 추진

[MedCityNews, 2020.07.05.; Healthcare Innovation, 2020.07.01.]

미국 Epic과 Cerner, 전자건강기록(EHR) 시장을 양분

■ **'18년 미국 병원 전자건강기록(EHR) 시장은 에픽(Epic)이 28%, 서너(Cerner)가 26%로 두 회사가 미국 병원 EHR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Meditech(16%), CPSI(9%), Allscrips(6%), Medhost(4%), athenahealth(2%) 순**

- 에픽(Epic)은 현재 2억 5천만 명 이상의 환자의 EHR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Epic의 'MyChart Companion'을 활용하여 △약속 예약 △설문지 작성 △건강데이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며, 의료시설에서는 △진료 팀과 연락 유지 △일정 및 환자 자료 검토 가능
- COVID-19 동안 에픽은 심장질환치료로 유명한 클리블랜드클리닉(Cleveland Clinic)과 공동으로 원격 모니터링앱을 도입하여 임상의가 COVID-19 환자의 증상 변화를 원격으로 추적
- '19년 서너는 우버헬스(Uber Health)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계약을 맺어 클라우드기반 플랫폼에 치료품질 향상을 위한 예측 역량을 강화

[Business Insider, 2020.07.18.; Beckers' Hospital Review, 2020.06.25.]

영국 NHS, COVID-19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Palantir와 계약 연장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산하기관인 NHS England and Improvement와 NHSX가 추진하고 있는 NHS COVID-19 데이터저장소(datastore)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테크회사인 팔란티어(Palantir)와 4개월간 계약 연장

- NHS England and Improvement와 NHSX는 지역 및 국가 보건 책임자에게 COVID-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컨트롤의 역할을 담당

  * NHS의 산하기관인 NHS England Improvement는 서비스 개선 및 전환, 거버넌스 및 책임, 모범사례 표준, 데이터 및 정보 품질에 대한 국가적 방향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19년 별도의 이사회는 존속시켰지만 하나로 통합

- Palantir는 NHS가 지시한 대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프로세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Palantir 플랫폼에 전송하기 전에 모든 민감한 데이터가 식별되지 않거나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 NHS Futures에서 호스팅되는 이 플랫폼은 여러 NHS 및 사회복지(social care) 데이터 세트를 단일 위치로 통합하며 NHS Digital의 111 온라인, 콜센터 데이터, Public Health England의 COVID-19 테스트 결과 데이터가 포함

[Digital Health, 2020.07.17.; CNBC, 2020.07.16.]

일본, COVID-19 확산에도 의사를 지원할 ICT활용 미흡

일본은 COVID-19 확산 이후 사회 내 ICT 활용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보안에 대한 우려와 재원 문제로 의사들의 근무를 지원하는 ICT 활용은 미흡

- 2월 이후 ICT 활용에서 앞서가는 미국 학회와 달리 일본은 보안대책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ICT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새로운 ICT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고조

- D2P(Doctor to Patient) 온라인 진료는 대면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입 시 설명이나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진료를 지원하는 도구로 보기 어려우나 내원 중단에 따른 증상의 악화를 막는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적합

  * 궁극적으로는 의료 전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의료지원 수단이란 의견이 많아, 온라인 진료의 과제와 효과를 의사의 진료 지원이란 관점에서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 D2D(Doctor to Doctor)를 통한 진료의사 지원의 경우,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중증환자는 물론 2차 의료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응급환자를 이송없이 연계해 치료하거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 전문의가 부족한 곳은 일상적인 진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日本医師会総合政策研究機構, 2020.07.15.]

인도 헬스케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헬스(mHealth)

■ **인도정부는 디지털생체인식프로그램(Aadhaar)을 포함하여, 국가건강포털, e-Hospital, 통합건강정보프로그램(IHIP) 등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전자정부 육성에 필요한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

- 글로벌기업 로얄필립스(Royal Philips)의 15개국 미래건강지수(FHI) '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국가의 의료전문가 76%가 디지털헬스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내 AI 사용률이 15개국 평균수치인 46%를 기록
- 특정 검색어에 대한 상대적 관심을 분석하는 도구인 'Google Trends'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mobile health', 'health apps', 'medical apps', 'mHealth'와 같은 검색어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5개 국가 중 하나로서 모바일헬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
- 인도 인구의 65%은 저소득층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mHealth 기술을 통해 환자를 의료 전문가와 연결시킬수 있다는 점도 향후 mHealth 분야의 성장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BW BusinessWorld, 2020.07.20.; Express Healthcare, 2020.06.29.]

마이크로소프트社, 원격의료 수행을 수월하게 해주는 플랫폼 프리뷰 발표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社는 임상, 연구데이터, 의료행정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해 활용하여 원격의료 수행을 수월하게 해주는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용 '아주어IoT커넥터(Azure IoT Connector)'의 프리뷰를 발표**

- 가상 환경에서 일반 동영상 서비스 및 데이터 전송을 이용하는 여타 서비스와는 달리, 헬스케어에서 원격의료 방문 및 원격 모니터링에는 '보호가 필요한 건강정보(PHI)'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
- FHIR용 Azure IoT 커넥터는 Microsoft 클라우드 기반 FHIR 서비스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며, 헬스케어 개발자가 IoT 기기에서 PHI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을 설계된 수집 파이프 라인에 빠르고 쉽게 설정 가능

  * FHIR은 안전한 개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이며, 임상 데이터를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서, IoMT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원격 모니터링 분야에서 헬스케어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

- FHIR용 Azure IoT 커넥터는 수집 단계에서 생체인식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기와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를 연결 가능

[BioMetric, 2020.07.10.; Incode Home Page, 2020.07.10.]

4대 보건산업

미국 NSTC, 고령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혁신 추진사항 제시

■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고령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혁신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COVID-19 및 미국 노인들을 지원하는 중요하고 지속적인 예상 작업의 주요 내용을 제공하는 연방부서와 기관들의 투자와 영향 측면에서의 역할들을 강조**

- 65세 이상의 미국인 수는 현재 17%에서 '60년에는 거의 4분의 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에서 74세 인구 중 요양시설 밖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25%와 75세 이상 인구의 거의 50%가 시각, 청각 또는 이동성 문제와 같은 기능 장애를 겪을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노령화 인구에 대한 해결책을 R&D 우선순위로 설정하였고 '19년 3월 NSTC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R&D를 위한 지침서인 '노령인구 지원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to Support an Aging Population)'을 발표
- 부처별 혁신 주요사항 보고서는 지역사회거주관리청(ACL), 보건의료품질연구소(AHRQ) 등 연방 부서와 기관들이 개인 이동성, 인지 변화,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일반적인 건강과 영양에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을 제공

[NSTC, 2020.06.25.]

미국 암젠, 노바티스 산도스 상대 소송에서 2개 특허 유효 판결

■ **암젠(Amgen)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암젠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엔브렐(Enbrel)에 대해 경쟁사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산도스의 바이어시밀러 이렐지(Erelz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개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획득**

- 최근 몇 년동안 산도스(Sandoz)는 암젠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Enbrel의 바이오시밀러인 Erelzi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무산
- Erelzi는 '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플라크 건선을 포함한 Enbrel과 동일한 질환 치료제로서 허가를 획득
- Enbrel은 '19년 52억 달러를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암젠 매출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 승소판결로 당분간 유리한 입장이지만, 연간 10억 달러의 미국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노바티스와의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사항

[BioPharmaDive, 2020.07.01.; AMGEN, 2020.07.01.]

영국 옥스퍼드대학, COVID-19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연구결과

■ **국제의학학술지 란셋(Lancet)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은 1,077명의 건강한 성인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1/2상 임상 실험에서 56일 동안 체내에서 강한 항체 및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

- 란셋에 따르면, 대조군인 수막염균 백신에 비해 COVID-19 백신이 열, 두통, 근육통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을 자주 유발하기는 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백신과 함께 진통제인 파라세타몰(paracetamol)을 복용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음을 강조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COVID-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160건 이상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의 백신은 가장 유망한 5개 후보 백신 플랫폼 중의 하나로 평가

  * 이외 4개의 주목받는 백신개발은 △미국 모더나(Moderna)의 mRNA 플랫폼 △중국 칸시노(CanSino)의 아데노바이러스벡터(adenovirus vector) 백신 △중국 시노백바이오텍(Sinovac Biotech) 백신 △미국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으로부터 16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획득한 노바백스(Novavax) 백신 등

[Evening Standard, 2020.07.20.; Alliance for Science, 2020.07.20.]

덴마크 Ambu, 일회용 십이지장경에 대해 FDA 승인 획득

■ **덴마크 의료기기제조업체 앰부(Ambu)의 일회용 십이지장경(Single-use duodenoscopes)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시판전 신고사항인 501(k)의 승인을 획득**

- '19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재사용이 가능한 십이지장경 의료기기 관련 감염 및 환자 사망 사례로 인해, 십이지장 내시경 제조업체 및 의료 시설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일회용인 십이지장경으로 전환하도록 권장

  * 십이지장경(Duodenoscope)은 췌장 및 담관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입을 통해 소장의 상부로 내려가는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ERCP)'로 알려진 검사에 사용

- 멸균처리된 Ambu의 'aScope Duodeno' 의료기기는 '21년 1/4분기에 시판을 목표로 미국의 여러 센터에서 500명의 환자에 대한 시판후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회용 십이지장경의 기기당 가격은 $1,400~$1,600으로 책정할 예정
- 그러나 Ambu는 현재 일회용 또는 준일회용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는 보스턴사이어티픽(Boston Scientific, 펜탁스(Pentax) 및 올림푸스(Olympus)와 같은 의료용 내시경 경쟁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

[Verdict, 2020.07.20.; Intrado, 2020.07.17.]

EC, 화장품 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에 대한 평가 발표 예정

■ **EU집행위원회(EC)는 화장품 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EU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결과에 대한 평가(Fitness Check)를 발표할 예정**

- EC의 'Fitness Check'는 EU 화학물질법이 내분비 교란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제공하는 평가하는 도구
- EC는 화장품, 장난감, 식품과 관련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에 내분비 교란에 대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법률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내분비 교란물질을 평가하고 조절할 때 태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
- '18년 EC는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화장품규정(EC NO. 1223/200)의 검토를 실시하였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의 REACH 허가대상목록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결론
- 그러나 화장품 규정에서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규제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EC 실무그룹은 선별 연구 및 피드백에 따라 총 28개의 물질을 확인하였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분류

[Cosmetics design- europe, 2020.07.21.; ScienceDaily, 2020.07.21.]

일본, 첨단 바이오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바이오전략 2020' 마련

■ **일본은 '19년 발표한 '2030년 세계 최첨단 바이오 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책정한 종합 정책패키지에 이어 '바이오전략 2020'을 마련**

-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진단법, 치료법, 백신개발, 기기·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 △연구개발 환경 정비, 국제협력 △백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체제정비 등을 추진
- 시장획득을 위할 데이터 연계 촉진을 위해 가칭 '바이오데이터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책정
- 글로벌 바이오커뮤니티·지역 바이오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해 바이오커뮤니티의 인증, 연계촉진, 시장영역을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커뮤니티의 바이오 제조 실증·인재육성기능을 정비
- 또한 △관련 데이터기반 정비 △바이오커뮤니티 형성 △제도정비 등 바이오전략2019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시장영역 관련 시책 추진
- 바이오전략을 추진할 사령탑 기능 강화를 위해 전체적인 목표 평가에 KPI를 설정하고 정량적, 정성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평가 실시하며, △시장영역 로드맵 책정 △바이오커뮤니티 인증 △가이드라인 책정 등을 기본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시책을 연결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推進会議, 2020.06.30.]

COVID-19 대응, 기본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

■ COVID-19의 대응만을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비필수적인 의료행위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헬스케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는 인식하에 전 세계 인구가 기본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

-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희귀 질환, 암 및 기타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매년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암의 경우 조기탐지시 생존율이 높아지고 치료비용이 감소되지만 COVID-19 기간동안인 '20년 첫 15주 동안 암검진이 크게 감소하여 '19년 첫 15주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사는 68.2%, 난소암 검사는 33.8%, 유방암 검사는 17.4% 감소

  * 매년 1,800만 명이 새로운 암으로 진단되며, 전 세계적으로 암은 '18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6명중 1명 비율이 약 960만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 미국의 주요 의료보험사인 시그나(Cigna)에 따르면, 부정맥 상태인 심방세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35%, 일시적 허혈성 발작(ischemic attack)의 경우 31%, 간질 및 발작의 경우 28%, 위장 출혈의 경우 24%로 미국에서 최초 COVID-19 봉쇄 이전의 평균 수치보다 감소

[World Economic Forum, 2020.06.26.]

글로벌 COVID-19 백신대응체계, COVAX Facility에 150개국 이상이 참여

■ 75개국이 COVID-19 백신에 신속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글로벌 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에 가입하였고 총 150개국 이상이 참여 가능

  * COVAX(COVID-19 Vaccine Global Access)는 사전에 구매 계약을 협상하여 계약에 따라 생산업체는 사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의 백신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백신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COVID-19 백신대응체계를 의미

- '20년 6월 세계백신연합(Gavi)은 개발도상국의 COVID-19 백신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백신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수단인 COVAX AMC를 출범
- COVAX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COVAX Facility'에 75개국이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COVAX AMC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90개 국가의 참여 가능
- COVAX의 목표는 '21년 말까지 규제당국의 승인과 WHO 사전 검증을 통과한 20억회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모든 참여 국가에 인구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며, 처음에는 의료 종사자를 우선순위로 정한 다음 참여국가 인구의 20%까지 확대 예정

[World Heath Organization, 2020.07.15.]